

로마서 8장 31-39절(2)

- 읽을 말씀 롬 8:1-39
- 주요 내용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8장 31-39절이 견인의 교리를 다룬 것이 아니라는 것과, 이 단락의 참 의미를 깨닫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결코 칼빈의 견인 교리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그 앞에 나오는 1-30절의 문맥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 최종적인 해석 - 은혜로 깨달은 이 단락의 참 의미!

① 이 단락은 칼빈의 견인의 교리와 무관하다.

바울은 8장에서 먼저 모든 그리스도인이 7장에서 자세히 묘사한 죄의 법에 속박된 상태에서 생명의 성령을 통해 해방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1-2절). 그런데 왜 7장에서는 “죄” 만 “죄의 법” 이라고 했는데 8장에서는 7장에 나오는 “성령” 까지 “생명의 성령의 법” 이라고 했을까요? 죄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세력인 것처럼 성령도 우리를 다스리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죄의 법” 에 반하는 “성령의 법” 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또한, 7장과 달리 8장에서 “죄의 법” 을 “죄와 사망의 법” 이라고 한 이유는 성령이 생명을 주는 것과 반대로 죄는 우리에게 사망을 주기 때문입니다(6:23, 7:5 등). 따라서 “죄와 사망의 법” (8:2)은 “죄의 법” (7:21, 25)과 정확히 같은 것이고, 8장 2절의 뜻은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바울은 그래서 전과 달리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인 사랑과 거룩을 실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3-4절). 그리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고, 영을 따르는 자는 생명에 이르게 된다고 경고합니다(5-6절). 그 다음, 불신자를 포함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육신에 있는 자들)은 율법의 요구를 결코 이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7-8절). 그러나 믿는 자는 에스겔이 예언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와 다릅니다(9절). 9절의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는 신자는 육신에 있는 것과 대조되는 영역에 있는 자이므로, 아무리 노력해

도 죄를 이길 수 없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성령 안에 있는 자만 참 신자들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참 신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10절 전반절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는 난해구인데, 그 의미는 죄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해도 육체의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뒤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에서 ‘의’ 는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칭의(법정적인 의)로써 의를 통해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10절은 신자의 몸은 죄 때문에 결국 죽지만, 신자의 영은 주님이 주시는 의 때문에 생명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롬 5:18).

그 다음, 바울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결국 죽을 몸도 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11절). 단순히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죄의 지배에서 자유케 했을 뿐 아니라 결국에는 죄의 존재 자체에서 자유케 되는 몸의 구속까지 이루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가 완전히 죄에서 자유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2절의 **“빛진 자”** 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살아야 할 의무를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절대 육신에게 저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되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권면합니다(12절). 그리고, 바울은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경고했습니다(13절). 그러므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을까요?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곧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는 방법임을 알려줍니다(14절).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해주는 성령의 증거에 대해 썼습니다(15-16절). 우리가 처음 회개하고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영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해주십니다. 그 후 무조건 계속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일 때 우리 속에서 계속 증거해주십니다. 그럴 때 1절에서 말한 대로 정죄감이 사라지고 우리 영이 성령의 증거에 화답함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구원의 확신입니다. 또한 성령의 증거는 성령의 열매와 함께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성령의 증거도 없고, 우리 영의 증거도 없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데, 단 고난을 견뎌야 합니다(17-18절). 그 다음, 바울은 우리가 영광을 상속받을 때(재림 때),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피조물(자연계)에 대해 썼습니다(19-22절). 그러나 바울의 관심은 여전히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는 것을 넘어 죄의 존재 자체에서 해방되는 것에 있습니다(23절).

바울은 이 땅에서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 즉 죄의 존재 자체에서 자유케 될 몸의 구속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독려합니다(24-25절). 그리고,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 자유케 해주신(8:1-2) 보혜사 성령님이 중보기도를 통해 계속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26-27절). 이 구절에 나오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은 성령을 따라 행하여 거룩과 사랑을 실천하고, 완전히 자유케 되는 “몸의 구속” 즉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한 간구입니다.

한편, 26절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의 “연약함”은 단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3절에서 언급한 죄를 이기지 못하는(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심으로써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려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 탄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령의 탄식하는 간구의 결과 고난을 위시해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사랑과 거룩을 이루고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게 하신다고 무한 격려합니다(28절). 택함받고 구원받아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는 나쁜 일들도 협력하여 선이 됩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자를 해할 수는 없습니다(35, 38-39절).

그 다음, 바울은 예정과 예정의 목적에 대해 말했습니다(29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예지예정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죄의 지배뿐 아니라 죄의 존재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는 몸의 구속이 우리를 택하신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예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즉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30절). 이것이 현재까지 한 일이고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그 후에 다루었습

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미래의 궁극적인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 쓴 것이 바로 31-39절입니다.

한편, 31절의 “이 일에”에 대해 많은 학자들은 앞에 있는 내용들과 분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28절로 올라가면 “그의 뜻”은 예정이고, 29-30절에서도 택하신 자들, 31-39절에서도 택함받은 자들에 대한 것입니다(33절). 그러므로 31-39절은 앞부분과 분리된 것이 아니고, 1-30절의 근거 위에서 말한 것이 확실합니다. 때문에 반드시 지금까지 설명한 것의 근거 위에서 31-39절을 이해해야 합니다.

1-30절을 간단히 요약하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참 자녀이고, 성령께서 그것을 증언해주십니다. 참 신자는 사랑과 거룩뿐 아니라 죄에서 온전히 자유케 되는 몸의 구속이라는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그것을 위해 간구하고 그 결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그들은 보이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토대 위에서 이 단락을 살펴보면 “구원받은 자는 절대 버림받지 않는다.”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까지 죄의 지배와 존재 자체에서 해방되는 것에 대해 계속 강조한 바울의 논지와 전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13절에 육신대로 살면(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버림받고 멸망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과도 상반됩니다. 그러므로 이 단락은 절대 구원받은 자가 모두 틀림없이 궁극적인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일 수가 없습니다.

● 나눔과 적용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며 죄를 이기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기위해 날마다 시간을 정해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책을 읽거나, 기도할 때, 성령께서 깊이 인식하게 해주시는 기도제목들을 나누어봅시다.